

# AN, 태광 재가동에 동서 85% 감축

태광산업, 8월11일부터 재가동 ... 동서는 가동률 감축 속 55달러 인상

태광산업이 AN(Acrylonitrile) 플랜트를 7월부터 약 1달간 가동을 중지했으나 8월11일부터 재가동한 것으로 밝혀진 반면, 동서석유화학은 국제유가 상승으로 AN 플랜트의 가동률을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.

태광산업의 가동중지는 반응기에 설치된 촉매를 교체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8월11일부터 재가동에 들어가 80%의 가동률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
동서석유화학은 원유가격 상승으로 가동률 조정을 단행했는데 원료인 프로필렌 가격이 톤당 980-1000달러 대로 77달러 폭등하자 AN 가동률을 7월 97-8%에서 8월 85%로 가동률을 대폭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.

한편, AN 가격은 시시각각 심한 변동을 나타내고 있어 CFR ASIA 가격은 톤당 1090-1100달러를 기록했고 Spot 가격은 톤당 1250달러대를 형성하고 있다. <한유진 기자>

<화학저널 2004/08/27>